

『노트르담 드 파리』공연 · 체험콘텐츠의
OSMU(OSMD) → MSMU · ASMD 현황분석

Notre-Dame de Paris's Performance · experience contents -
Current status of OSMU(OSMD) → MSMU · ASMD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요약

『노트르담 드 파리』는 다양한 장르의 원전이 되고 있다. 그 중 뮤지컬, 발레, 피겨스케이팅, 유형문화재 등, 공연·체험 콘텐츠에서는 어떻게 OSMS(OSMD)에서 MSMU·ASMD로의 진화과정을 겪는지 그 현황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I. OSMU(OSMD) → MSMU · ASMD 현황 분석

OSMU(One Source Multi Use)와 OSMD(One Source Multi Device)는 동일선상에서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즉, 성공한 콘텐츠나 원전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켜 판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며 또, 똑같은 내용을 단지 다른 매체로 옮기는 방식이기도하다. 이와 반대로 MSMU(Multi Source, Multi Use)는 하나의 콘텐츠가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장르·매체의 서비스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ASMD(Adaptive Source Multi-Device)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및 기기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기기별로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다”[1].

위고의 소설을 원전으로 하는 대표적 OSMU 뮤지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1998)와 디즈니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1999)이다.

뮤지컬이기에 앞서 장르 간 컨버전스를 최대한 시도한 종합예술로서 스펙터클 쇼라고 볼 수 있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998』는 첫째 공연 최대의 관객을 모아 기네스북에 오른 뮤지컬계의 전설이자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이 된다[2]. 1998년 오리지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팔레 데 콩그레 초연 실황은 1999년 DVD로 제작되고, 11개국 공연(2500회)에서 1000 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은다. 2005-6년에는 프랑스 오리지널 공연단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문화의 감성에 영감을 주고 ‘공연사상 가장 많은 찬사’를 받는다.

독일에서 초연한 디즈니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1999)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판타지 동화 1996)을 다시 뮤지컬로 만든 무대이다. 최고 히트송은 ‘Out there’이

고 기존의 1996년 곡으로 ‘Some day’를 비롯해 새로 작곡한 9곡을 추가한다. 거룩한 미사전례 성가, 집시풍의 음악 및 카니발 노래 등 다양하면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음악을 아우르는 오케스트라는, 중세 성당에서 주로 사용한 신비한 중소리 악기까지 연주해낸다. 디즈니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는, ‘움직이는 큐브로 구성된 무대, 영사기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중세 파리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한 영상, 등 여러 가지 매력을 과시하면서 C.G.I. 애니메이션과 오케스트라를 MSMU로 융합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뮤지컬로서, 첫 라이선스 작업으로는 2004-5년 한국 신시뮤지컬컴퍼니 공연으로 재탄생한다.



그림 1. 뮤지컬(1998) 2. DVD(1999) 3. 디즈니 뮤지컬 4. 한국 라이선스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를 원전으로 하는 발레에는 또 2가지 종류가 있다. 러시아 낭만발레의 걸작 『에스메랄다』와 롤랑프티 버전의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있다. 위고의 소설을 각색한 페트로프 감독의 69인조 오케스트라 발레 『에스메랄다』는 무용드라마로서 무용과 드라마, 오케스트라를 멀티소스(MS)로 융합하면서 2006년 러시아가 최초로 발표하며 같은 해 국내 해오름 극장에서 소개한다. 발레리나·발레리노의 열정적인 몸의 움직임이나 무언의 동작은 배우의 대사나 노래의 감정 표현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단순히 기본 전환의 춤의 유희나 향연의 춤사위를 보여주기보다는 전체 스토리의 연

결성을 중시하면서 드라마의 섬세한 묘사와 개개인의 춤을 연계한다.

롤랑프티 버전의 「노트르담 드 파리」는, 1996년 파리 국립 오페라 공연을 2006년 유튜브(UCC)와 DVD 영상물로 제작한 무용다큐멘터리로서, MSMU 전략으로 무용과 다큐멘터리를 융합한 것이다. 아름다운 입생 로랑 의상으로 콘텐츠를 채색하고 에스메랄다를 둘러싼 카지모도와 프롤로, 페비스의 심리묘사에 역점을 두면서, 결말에 대해서는 원저자인 위고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두 가지 버전인 「에스메랄다(러시아 2009)」와 「노트르담 드 파리(프랑스 1996)」는 DVD 영상물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색 하나만으로 거의 동시에 국제 화제작을 관람할 수 있다.

『노트르담 드 파리』 원전은 또 피겨스케이팅의 안무동작 비주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은반위의 피겨 스케이터들은 발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이 컨버전스(Convergence)되어 발레의 우아한 동작과 피겨 스케이팅의 속도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은반 위에서 그려내 보이는 정교한 안무와 스토리의 피겨 프리댄스(Free dance)이다. 발레와 뮤지컬음악이 융 복합되면서, ‘롤랑프티버전의 드라마 발레 주인공’으로 분한 피겨 스케이터(Figure skaters)들은 음악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배합한 발레춤사위로 관객에게 위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리댄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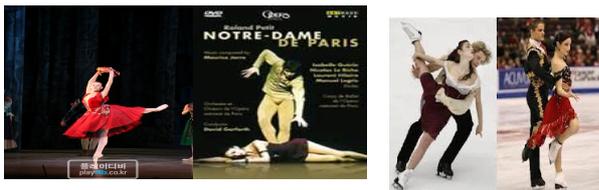


그림 1. 에스메랄다 2. 노트르담드파리 3. 피겨 스케이팅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분한 피겨스케이터들은, “사전 녹음된 유명 뮤지컬 넘버(혹,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 스케이팅과 액트배틱을 결합한 환상적 아이스쇼를 펼침으로써”[3], 얼음위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이들의 몸동작에도 원작인 위고문학의 이야기가 깊이 녹아들어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융합형 아이스댄싱(Ice dancing)’으로, 무대 위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오픈 영상과 오케스트라를 융합한 무대 위에서 만나는 은반 위의 공연이다. 즉, 애니메이션 무대영상의 뒷배경 화면에 떠오르면서 오케스트라를 동반하는 가운데, 위고 문학의 스토리를 연극으로 연출해내는 아이스댄서들의 극적인 표현들이 몸동작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융합형 아이스댄스’는 애니메이션 영상·곡예·발레·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통섭(Convergence)한 MSMU 융합콘텐츠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피겨 스케이팅 2. 융합형 아이스댄스

한편, 현시점에서 무한정 융합되고 있는 이같은 콘텐츠들은 장르뿐 아니라,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되는 매체 및 기술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ASMD(Adaptive Source Multi-Device)개념이 되면서, 하나의 콘텐츠가 또 다른 장르의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듯, 원작 『노트르담 드 파리』 예술작품의 확대재생산은 매체·기술을 달리함으로써 ‘비디오 영상 콘텐츠’나 ‘인터넷 사이트’ 혹은 ‘디지털 박물관’ 등, 무한정 변형이 가능하다. 즉, 위고 문학의 배경으로 한몫 하는 노틀담 성전은 관광문화유적지콘텐츠로서 DVD나 UCC로 제작된 디지털 영상매체뿐 아니라 사이버 상의 인터넷 검색을 통한 디지털박물관 관람 등 무한정 컨버전스가 가능해짐으로써[4]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관광목적지정보를 전 방위로 활용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멀티 유즈되는 문화콘텐츠의 근원적 장치로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의 배경이 되는 노틀담 성전은 유형문화 체험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부각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해오는 공연·체험콘텐츠의 컨버전스 현황분석을 통하여 원형인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관련 콘텐츠들이 어떻게 OSMU(OSMD)에서 MSMU·ASMD로의 다양한 변형형태를 띠며 진화하는지, 또, 장르·매체·기술의 확대재생산은 물론, ASMD관점에서 본 ‘디바이스’, ‘플랫폼’, ‘브라우저’, ‘퍼블리싱’과 같은 매체융합현상과 관련된 기술 융합으로도 확대 변환되는지 살펴보았다.

■ 참고 문헌 ■

- [1] 유은재, “N 스크린(N-Screen)”,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pp.27-32, 2011.
- [2] 차영선, “『노트르담 드 파리』의 컨버전스와 OSMU 현황”, 한국콘텐츠학회 전자책기술전시 및 학술대회 논문집, 제1권 제1호, pp.45-46, 2014.
- [3] 김기철, “대사 없이 춤과 노래로만 진행, 브로드웨이와 차별되는 프랑스 뮤지컬”, 일간조선, 2005년 3월호.
- [4] <http://news.donga.com/Culture/Music/3/0710/20121227/51868344/1>
- [5] <http://www.notredamedeparis.fr/>